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5 Issue | Vol. 31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미·중 긴장 속 APEC 통상장관들, WTO 전면 개혁 촉구
— page 1

• 교통부(DOTr): 부수양가·나가·라우악 공항 개선 작업 진행 중
— page 2

• 내무부(DILG), 지방자치단체(LGUs)에 정부 납부금 현금 없는 거래 도입 촉구
— page 2-3

• 필리핀 4월 지급 적자 26억 달러, 3월 대비 30% 확대; 전년 동월 대비 303% 증가 — page 3-4

• 프라스코, 제안된 아세안 비자의 영향력을 생겐 제도에 비유 — page 4

• 필리핀, APEC 회의에서 디지털 혁신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 page 5-6

미·중 긴장 속 APEC 통상장관들, WTO 전면 개혁 촉구

May 19, 2025 | Dexter Barro II | Manila Bulletin

한눈에 보기

- 21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통상장관들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의 상황 변화에 비추어 보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은 국제 무역의 전략적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두 주요 회원국인 중국과 미국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성명은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MRT) 이틀간의 회의 종료 후 발표된 것으로, APEC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가 글로벌 무역 체계의 핵심 요소로서 무역 관련 이슈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APEC은 최근의 상황 변화에 비추어 WTO가 보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나 기타 무역 혼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PEC은 회원국들이 “글로벌 무역 체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무역과 핵심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는 보복성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가진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인상하는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APEC 21개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APEC의 창립 회원국인 필리핀도 이에 포함되었으며, 17%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번 공동 성명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산업 전반에 걸친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에 초점을 맞췄다.

성명은 “APEC 역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공급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이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식량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적인 농식품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고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APEC 회원국들은 관세 문제에 대해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여 이 사안은 사실상 논의에서 비켜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포함해 보다 심화된 경제 통합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경험 공유, 역량 강화, 기술 협력 확대가 이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언급되었다.

통상장관들은 또한 무역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AI) 도입의 중요성과 디지털 전환의 이점, 중소기업(MSMEs)의 역량 강화, 그리고 전자 무역 관련 문서의 국경 간 상호 인정 촉진에 대한 의지도 논의했다.

Source: <https://mb.com.ph/2025/05/17/apec-trade-chiefs-urge-sweeping-wto-reforms-amid-us-china-tensions>

교통부(DOTr): 부수앙가 · 나가 · 라우악 공항 개선 작업 진행 중

May 19, 2025 | Elijah Felice Rosales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교통부(DOTr)는 부수앙가, 나가, 라우악 공항 개선을 위해 약 6억 페소를 투입하여 해당 지역 항공 여행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DOTr는 일련의 입찰 공고를 통해 팔라완의 부수앙가 공항과 일로코스 노르테의 라우악 국제공항의 업그레이드를 담당 시공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부수앙가 공항의 활주로 연장 및 슬더(활주로 옆 부분) 정비를 위해 DOTr는 3억 862만 페소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사업의 낙찰자는 활주로 특정 구역의 회전 패드 완성 및 배수 시스템 보수 작업도 수행해야 하며, DOTr는 시공업체에 300일 내 사업 완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DOTr는 라우악 국제공항의 평행 유도로 건설에 1억 940만 페소를 배정했다. 이 사업은 콘크리트 박스 교량, 콘크리트 파이프 및 개방형 수로 건설을 포함해 공항의 항공측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한다.

라우악 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70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DOTr는 5월 26일 입찰 전 회의를 개최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과 개찰은 6월 11일에 진행된다.

부수앙가 공항은 팔라완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코론으로 가는 관문이며, 라우악 국제공항은 대통령 마르코스의 고향 지역인 일로코스로 향하는 관문이다.

한편,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은 9월부터 카마리네스 수르의 새로운 나가 공항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마르코스 행정부의 우선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새 나가 공항은 항공 교통량 증가를 목표로 하며, 비콜 지역에서 가장 분주한 도시 중 하나인 나가의 무역과 여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CAAP는 9월에 새로운 관문이 들어설 부지에서 초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 나가 공항은 낮과 밤 모두 전폭적인 제트기 운항이 가능한 시설로 설계될 것이다.

현재 CAAP는 기존 나가 공항의 활주로를 업그레이드 중이며, 2024년 예산에서 7,150만 페소, 2025년 예산에서 8,520만 페소를 투입할 계획이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5/19/2444032/dotr-improvements-underway-busuanga-naga-laoag-airports>

내무부(DILG), 지방자치단체(LGUs)에 정부 납부금 현금 없는 거래 도입 촉구

May 16, 2025 | KG, GMA Integrated News

내무부(DILG)는 토요일 지방자치단체(LGU)들에게 현금 거래의 대안으로 전자 결제 및 징수 시스템(EPCS)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정부 디지털 전환 추진과 관련된 것이다.



내무부(DILG)는 각 지방자치단체(LGU)가 지방세, 수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전자 결제 및 징수 시스템(EPCS)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고 메모랜드 서한에서 밝혔다. 이는 정부 거래에 디지털 결제 사용을 규정한 2022년 행정명령 제170호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DILG)는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결제가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LGU)는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결제 채널을 보장하고, 정부 서비스 은행을 포함한 승인된 제공업체와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고 덧붙였다.

또한 내무부는 이러한 노력이 국가 소매 결제 시스템 프레임워크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 page 3]

내무부(DILG), 지방자치단체(LGUs)에 정부 납부금 현금 없는 거래 도입 촉구
 [Cont. from p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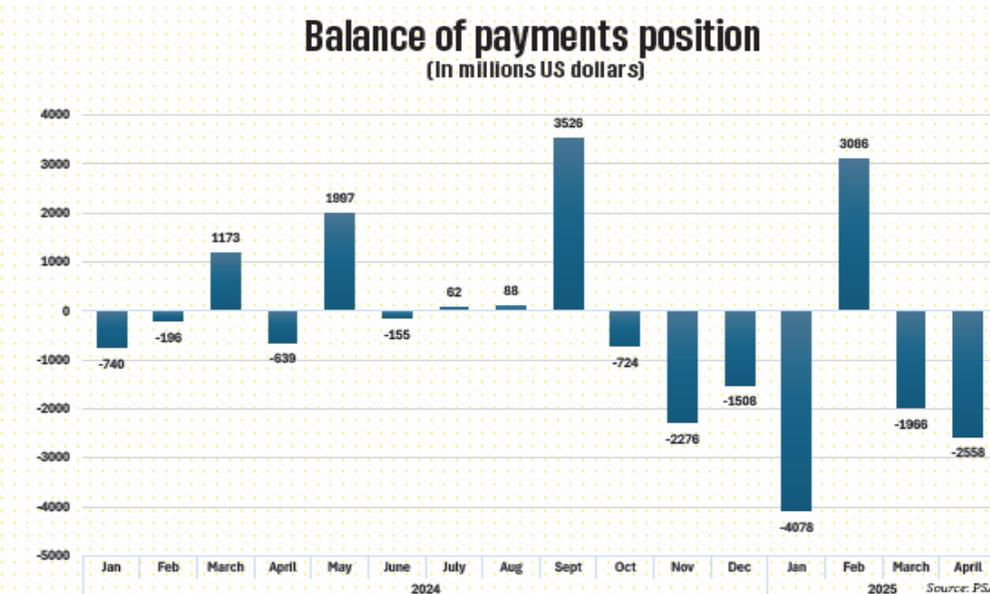
내무부는 또한 감사위원회(Commission on Audit)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지침에 따라 전자 송장 및 청구서 발급 절차를 명확히 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LGU)에 요청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LGU가 전자 결제 외에도 현금 및 기타 전통적인 결제 방식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LGU가 전자 결제 수용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 조례 및 지역 정책을 제정할 것을 권장했다.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46458/dilg-tells-lgus-to-adopt-cashless-transactions-for-government-payments/story/>

필리핀 4월 지급 적자 26억 달러, 3월 대비 30% 확대; 전년 동월 대비 303% 증가
 May 20,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의 지급준비금(BOP)은 4월에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3월의 19억 7천만 달러 적자보다 30% 확대된 수치라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밝혔다.

BSP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지급준비금 적자는 2024년 4월의 6억 3,9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303% 증가한 것이다.

BSP는 성명에서 이번 적자는 국가 정부가 대외 채무 상황과 다양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된 외화 예금을 인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BSP는 외환 시장에서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4월 적자 누계는 55억 달러 적자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4억 100만 달러 적자 대비 1,271.5% 증가한 수치이다.

BSP는 “예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의 지급준비금 적자는 주로 상품 무역 적자의 확대를 반영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감소는 해외 필리핀인의 개인 송금과 국가 정부의 외국 차입금 유입으로 일부 완화되었다” 고 덧붙였다.

지급준비금(BOP)은 특정 기간 동안 국가와 세계 나머지 국가 간의 경제 거래를 요약한 것이다.

국제총보유액(GIR) 감소

BSP에 따르면 4월 지급준비금 상황은 4월 말 기준 국제총보유액(GIR)이 1,053억 달러로, 3월 말의 1,067억 달러보다 감소한 것을 반영한다.

GIR은 필리핀의 해외 투자, 금 및 외환 보유고, IMF 내 국가의 준비금 위치, 그리고 특별인출권을 포함한다.

BSP는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신 GIR 수준이 여전히 강력한 외부 유동성 완충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Cont. page 4]

필리핀 4월 지급 적자 26억 달러, 3월 대비 30% 확대; 전년 동월 대비 303% 증가

[Cont. from page 3]

BSP는 “이는 상품 수입과 서비스 및 주요 소득 지급을 약 7.3개월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잔존 만기 기준으로는 단기 외채의 약 3.7배를 커버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폐소화에 대한 압력

필리핀개발연구원(PIDS) 선임연구원 존 파올로 리베라는 이번 적자가 수출 확대와 보다 안정적인 자본 유입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리베라는 “4월의 확대된 지급균형(BOP) 적자는 수입 증가 지속, 외채 상황,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송금 유입 둔화 등을 반영하며,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폐소화 및 외환보유액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RCBC 수석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는 BOP 지표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충보유액(GIR) 테이터도 나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카포트는 “BOP는 국가 정부의 외화표시 차입금 수익으로 인해 일부 개선될 수 있다” 며, “정부는 2025년에 35억 달러 규모의 상업 차입을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 송금 증가,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수익, 수출, 외국인 관광 수입 및 기타 구조적인 미달러 유입 등이 BOP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은 국가 정부의 외채 순상환 및 다양한 미달러 지출로 상쇄될 수 있다고 했다.

리카포트는 “향후 BOP와 GIR 지표가 개선되면 폐소화에 대한 더 강한 방어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payments-april-deficit-at-2-6b-widens-by-30-from-march-by-303-from-yr-earlier/>

프라스코, 제안된 아세안 비자의 영향력을 생겐 제도에 비유

May 18,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관광부 마리아 에스페란자 크리스티나 G. 프라스코 장관은 유럽의 생겐 비자를 보유한 여행객들처럼, 제안된 아세안(ASEAN) 비자가 지역 내 여러 목적지를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을 장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세안의 슬로건은 ‘모든 꿈을 위한 하나의 목적지(A destination for every dream)’ 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비자는 분명 그 꿈의 일부입니다,” 라고 프라스코 장관은 주말 동안 발표한 성명에서 말했다.

그녀는 이 제도가 “아세안을 자연 자원의 강점과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과 환대를 기반으로 하나의 관광지로 통합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프라스코 장관은 이번 제안이 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 비자나 유럽의 생겐 비자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관광부 장관으로서 저는 이 제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2026년 필리핀이 아세안 회의를 주최하게 될 때 이 주제가 다시 논의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프라스코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전한 경쟁’ 을 유지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쟁은 언제나 전전하지만, 협력은 더욱 바람직합니다. 아세안이 하나로 뭉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이어 “우리는 최근 관광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 프로그램을 체결한 태국과 같이, 기존에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녀는 중국인 관광객의 필리핀 방문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은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시장으로 다변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Cont. page 5]



프라스코, 제안된 아세안 비자의 영향력을 쉥겐 제도에 비유

[Cont. from page 4]

그녀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중동과 GCC(걸프협력회의) 지역, 인도와 같은 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기존 주요 시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동 및 GCC 지역에서의 관광객 수가 500~800% 증가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2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82% 감소한 수치다.

이 중 한국은 22.25%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가 한국 외 주요 관광객 유입국으로 집계됐다.

마스터카드 경제연구소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과 약세 원화의 영향을 받아 일본처럼 엔화 약세로 여행이 저렴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이 더 많은 스포츠 및 음악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형 스포츠 또는 음악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것도 관광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는데,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의 사례처럼 일본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마스터카드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만(David Mann)은 필리핀이 관광객의 방문 경험을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실제 방문했을 때의 경험이며, 그들이 이를 어떻게 전파하느냐입니다. 입소문과 소셜미디어에서의 공유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스토리가 자생적으로 확산되면 될수록 관광 유입은 더 강력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경 통과와 용이성 개선이나 직항 노선 확대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열정과 확신이야말로 차별화된 요소가 되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5/18/673225/frasco-likens-impact-of-proposed-asean-visa-to-schengen-scheme/>

필리핀, APEC 회의에서 디지털 혁신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May 20, 2025 | Kris Crismundo | Philippine News Agency



TRADE MINISTERS.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economies, observers and guests at the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 held in Jeju, South Korea on May 15, 2025. Trade Secretary Ma. Cristina Roque (6th from right, front row) represented the Philippines. (Photo courtesy of DTI)

마닐라 — 필리핀은 최근 한국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 담당 장관회의(MRT)에서 이웃 국가들의 무역 장관들에게 디지털 혁신, 개방 무역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을 요청했다.

무역산업부(DTI)는 5월 15일 열린 APEC MRT 회의에서 마리아 크리스티나 로케 장관이 공정성, 투명성 및 포용성을 촉진하는 규칙 기반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리핀의 노력을 강조했다며 월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로케 장관은 “필리핀은 공정성, 투명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확고히 지지하며, 이는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며 다자간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들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Cont. page 6]

필리핀, APEC 회의에서 디지털 혁신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Cont. from page 5]

로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이 글로벌 무역을 재편할 잠재력을 강조하며, 필리핀이 디지털 및 창의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법안과 인력 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I와 신기술은 글로벌 무역을 새롭게 정의할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역산업부 장관은 디지털 격차,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 사이버 보안 위협, 규제 분열 등 글로벌 디지털 환경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다자간 무역 체계 논의 중 로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업 및 수산 보조금에 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APEC 회원국들이 무역 정책을 환경 보호 및 사회 복지와 조화시키도록 권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무역 정책이 최신 지식과 모범 사례를 반영하도록 기업, 시민사회, 과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케 장관은 물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 필리핀의 규제 개혁과 인프라 투자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마르코스 정부 하에서 필리핀이 APEC의 협력, 개방성, 공동 번영이라는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0414](https://www.pna.gov.ph/articles/1250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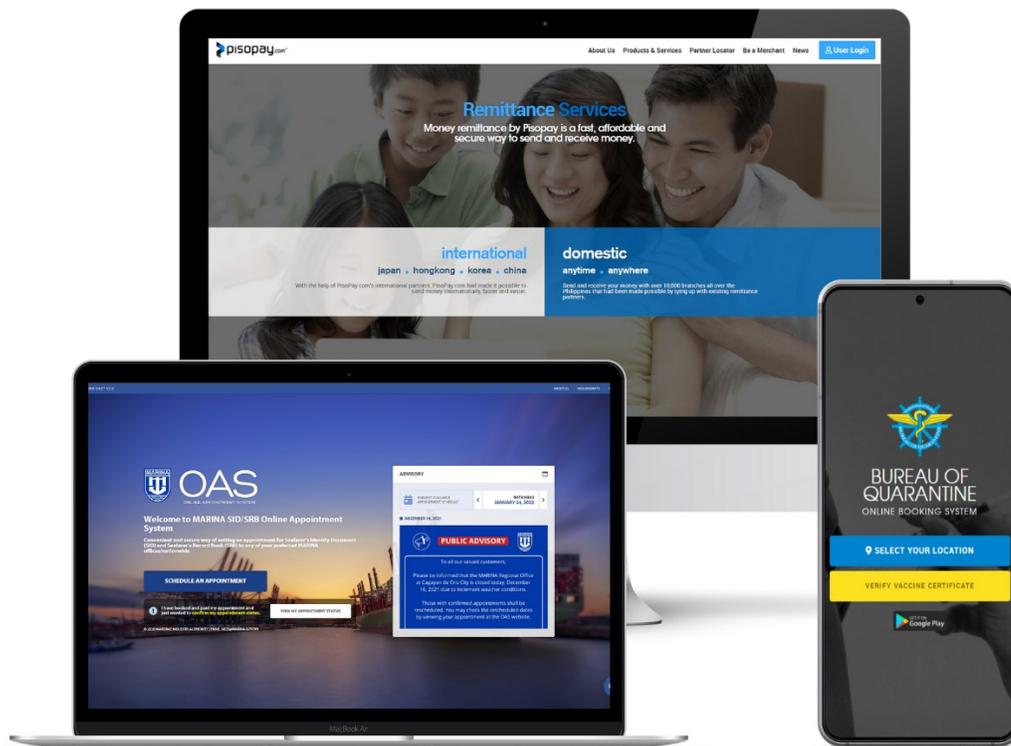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